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20원 상승한 1,194.60원에 마감
------	------------------------------

8일 환율은 전일대비 4.20원 상승한 1,194.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40원 내린 1,190.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달러화 강세와 위험회피 분위기에 상승하였다. 코스피 지수 하락과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에 환율은 추가 상승하여 전일대비 4.20원 상승한 1,194.6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66.60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90.00	1195.00	1190.00	1194.60	1193.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66.96	1071.07	1064.81	1066.06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81.66	1384.14	1379.40	1380.0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1	1.18	2.08	4.4
	결제환율(수입)	0.65	2.39	4.06	7.6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인플레이션 우려 강화에... 1,19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8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94.60원) 대비 1.55원 오른 1,197.0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공포 확산이 위험선호심리 위축과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상승이 예상된다. 국제 유가는 장중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하며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를 자극하였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61%로 상승하며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달러 인덱스는 한때 93선대 후반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94.3선으로 상승하였다.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고용 부진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며 하락하였다. 또한, 중국 규제 이슈로 인해 아시아 증시 하락 가능성이 높으며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을 포함한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감독 의무 태만 및 민영기업과 유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보도하였다.

다만,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와 상단대기 물량 부담은 환율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기준금리 결정과 한국은행 총재 발언 내용에 따라 장중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91.50 ~ 1198.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63.1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5원 ↑
	■ 美 다우지수 : 34496.06, -250.19p(-0.7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5.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315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